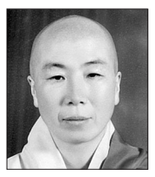
본말사 주지 인사

3월 9일·11일 종무회의 결과

정호스님
제2교구본사 용주사



선도스님
시흥 법련사

정묵스님
양양 영혈사

안도스님
부산 반야원

설송스님
영주 희방사

사유재산 출연 공동논의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대중결사, 총무원에 제안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스님)가 지난 12일 △총무원장 직선제 법안 제정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대한 입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총무원에 제출했다.

대중결사는 제안서에서 "전체 종도들의 뜻이 반영되는 '총무원장 직선제' 법안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2009년 대중결사가 의뢰하여 전국의 스님과 재가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에서 모든 종도들은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결사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좋은 취지이지만 전체 종도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오해와 반발이 많다"면서 "종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며 공동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중결사는 최근 해인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과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에 대해서도 "종단개혁의 의지는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지난 8일 열린 대중결사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발전, 큰 틀에서 해결책 모색 성과"

신촌 봉원사 문제가 해결됐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큰틀'에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한데 이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서에 동의했다.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이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소모적이고 지루하게 진행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날 조계종과 태고종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발전의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본지 제2606호 1면 참조〉

조계종-태고종 '봉원사 소유권 합의' 의미

50여년 끌어온 숙제 '소통' 통해 마무리

선암사 등 미입주사찰 문제 푸는 '시금석'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이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양 종단의 이번 합의는 향후 순천 선암사를 비롯한 '미입주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교계 일각에서는 "두 종단이 '불교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면서 "향후 양 종단의 현안도 이 같은 원칙하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1975년 태고종 봉원사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 확인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81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후 조계종은 봉원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고, 태고종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조계종은 1982년 6월 제7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유휴재산 정리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양 종단은 실무진이 1982년과 1983년 "경내지는 조계종이 태고종에 무상양도하고, 경외지는 조계종이 관리 처분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됐다.

1988년 제93회 임시종회에서 '중흥불사 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94회 종회에서 "분규중인 사찰에 대한 기본 재산을 재단에 편입시켜 불교중흥에 따른 목적사업에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법인정관을 추진키로 했다. 당시 정관 (준비) 내용에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재단을 설립하며, 이사는 조계종 7명, 태고종 6명으로 양 종단의 중앙종회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안했다. 이에 태고종은 가용토지 9만9170여㎡(3만평)를 조건 없이 조계종에서 재단에 편입시켜 중흥불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23만1404㎡(7만평)는 태고종 봉원사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합의에 한발 다가섰지만, 결국 태고종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후 제96회 종회, 제98회 종회, 제99회 종회, 제103회 종회 등에서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1년 1월 103회 임시종회 이후 봉원사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5일 조계종이 봉원사 등기 명의인을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변경하고, 태고종이 2003년 5월 '조계종 봉원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말소 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현안으로 부각됐다.

2005년 3월 양 종단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촌 봉원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회의를 몇 차례 가졌지만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2006년 4월 조계종은 9명으로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양 종단이 이번 합의에 이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07년 5월15일 열린 제1차 조계종·태고종 대책위원회 회의다. 이 회의에는 양 종단 총무원장이 배석하고, 조계종 7명, 태고종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 사항'에 동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이날 "양 종단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신촌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봉원사 문제 해결 이후, 양 종단의 남아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봉원사 관련 소송은 재판 연기를 요청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후 양 종단은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20여 차례의 각종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조율해 나갔다.

2008년 4월 열린 제176회 임시종회에서 조계종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집행부가 참여한 '신촌 봉원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태고종과 활발한 접촉을 벌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월28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의 조정안을 양 종단에 제시했다. 서울고법은 "92필지 60,575㎡(1만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99필지 130,511㎡(3만9480평)를 태고종 소유로 한다"고 강제조정했다. 이 조정안에는 "봉원사 경내·외 소유 토지에 대해 원고 및 피고 조계종은 사찰 수행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고 및 피고 조계종은 부처님의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봉원사 경내·외 소유 토지에 대해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각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종단이 중앙종회와 종무회의, 산중총회 등을 거쳐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50년을 끌어온 '신촌 봉원사 문제'가 일단락됐다.

물리적 충돌이 없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5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과, 교단 밖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양 종단이 꾸준하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불교의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상당수 남아있는 '조계종 미입주 사찰' 문제 또한 '신촌 봉원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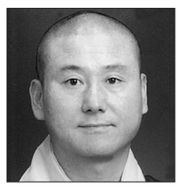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숨은 공로자 3인

'만남' '양보' '공감'

공식·비공식회의 40~50회

소위원회도 10여 차례 개최



성직스님
특위 위원장

법안스님
봉원사 주지

장영욱
재무관리팀장

50년간 지속된 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종무원 등의 숨은 노고가 있었다. 그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 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직스님, 조계종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 총무원 재무부 장영욱 팀장은 양 종단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위원장 성직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조계종과 태고종의 화합의 계기가 된 것을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양보가 있어야 합의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직스님은 "신촌 봉원사 문제는 오랜 시간을 지내왔는데 앞으로 서로 양보의 마음을 가지면, 불교와 봉원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조계종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은 "양 종단이 서로 시각차이가 커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자주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법안스님은 "꾸준히 만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좋은 결과에 도달했다"면서 "그동안 공식회의만 23차례 갖고, 비공식 회의까지 40~50번 만났으며, 소위원회도 10여 차례 개최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총무원 재무부 장영욱 팀장은 "10여 년간 종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현안이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종단 방침에 따라 미입주 사찰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인년 桐華寺 주지선거에 즈음하여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

불조혜명(佛祖慧明)의 법운이 서린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는 영산 팔공의 준령아래 대구광역시와 고령, 청도, 칠곡, 성주의 4개군 180만 불자가 청정한 신심으로 법화(法華)를 꽃 피우고 있는 한국불교의 긍지와 자존어린 교구이다.

이러한 제9교구에서 금년 4월에 실시되는 동화사 주지 선거에 즈음하여 연담·고송문도 원로를 비롯한 교구내 원로들은 지역과 교구의 종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의(法意)로서 간곡히 유시하는 바이다.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우리 조계종은 1994년 개혁종단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각종선거로 인한 병리와 폐해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우리가 속해있는 제9교구는 지난 세번의 주지선거를 통해 타 교구보다 그 정도가 심해 지역승단은 크게 분열되어 있고 선거후유는 심각의 도를 넘어 있다.

승려간의 법계가 무시돼 승단의 질서가 흔들리고 선거집단간에 야기되는 반목과 질시는 수미산 만한 골을 지어 수행자의 본분마저 위협하고 있다. 삼보정재의 유실은 물론 출가정신 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어 더 이상은 좌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종단차원에서 공청회 등의 뜻있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아직은 문제의식 속에서만 있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4월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예견되는 비불교적이고 반승가적 행태에 대해 우리 원로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9교구내 지역과 연담·고송 양대문중의 원로들은 정좌속에서 스님들을 비롯한 교구내의 모든 사부대중들께 다음과 같은 간곡한 법의(法意)를 드린다.

-. 화합승단과 청정교구를 위해 금번 동화사 주지는 연담·고송 양대문중을 비롯한 제 문중 및 지역불교계가 육화(六和)의 정신위에서 경선없이 산중고유방식으로 추대하길 염원한다.

-. 이를 위해 우리 교구원로들도 위법망구의 원력으로 합심어린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 모든 사부대중이 일심(一心)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 우리 원로들은 지난 3월 1일 송림사에서 개최된 연담문도 문중회의에서 금년 4월 동화사 주지선거에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후보로 고송문도 법광스님을 지명하고 의결한 것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이에 금일 교구원로모임은 지난 연담문도 문중회의의 의결을 법열로 환영하며 그 소중한 뜻이 공포됨을 경하해 마지 않는다.

-. 부디 연담·고송 양문중 문도들을 비롯한 교구내의 모든 스님들은 양문중 단일후보인 법광스님이 산중공의에 의해 추대될 때 까지 원행(願行)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고 지역불자들도 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

-. 우리 원로들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여법히 회향되고 이를 통해 우리교구가 새로운 승가상을 확립하고 청정교구 화합교구의 초석을 다져 지역사회와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흥에 기여하는 법연(法緣)으로 이어지길 삼보전에 정려히 축원드린다.

불기 2554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9교구 원로모임

화산 도원 원명 진제 무공 지성 현근 경희 혜선